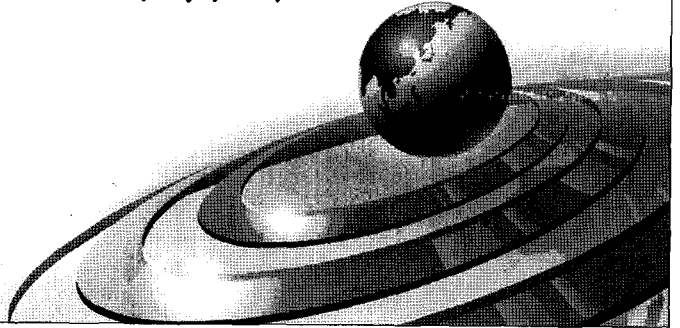


디지털방송기기 수출사업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 윤종용)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틀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해외 시장조사 및 방송장비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몽골 DMB 사업권을 획득함에 따라 DMB를 포함한 방송장비 몽골시장 선점을 위한 시연회를 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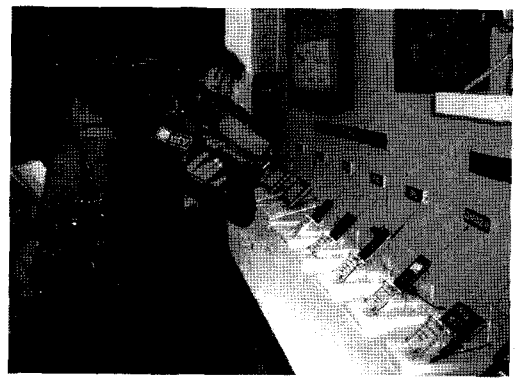
몽골 방송장비 로드쇼의 개요로, 한국 방송장비의 시연회이다. 지상파 장비(5개), DMB(1개), IPTV(1개) 총7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참석인원은 약 300여명(몽골 방송사업자, 학계 관계자 등)이다.

MOU 체결 및 몽골 T-DMB 사업 설명이다. MOU는 디지털방송, IPTV, 휴대용 방송장비 등 3개 분야이고, 몽골 T-DMB 사업자 선정(UB DMB)에 따른 사업설명이다. UB DMB는 몽골 현지 DMB 사업자이다. VIP 면담으로 지정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몽골 통신규제위원장의 회동이 있었다. 디지털방송포럼에서 한국 방송장비 및 기술 소개가 있었다.

몽골 진출 업계 간담회에는 한국측에서 정보통신 산업정책관, ETRI, KETI, 업계 등 11명이고 현지업체에서 Skytel 등 4개 업체 대표가 모였다. 토의사

향으로, 몽골 정부는 통신분야 자국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몽골리아 텔레콤 등)을 밝히고, 몽골 정부의 네트워크사업과 서비스사업 분리추진에 따른 외국기업의 사업추진상 애로를 호소하였다. 토의 사항을 당일 오후 몽골 통신규제위원장 면담시 전달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몽골에 관한 법제도 정비 등을 촉구하였다.

한국 방송장비 시연회에서는, UB DMB의 몽골



현지 언론 취재 (몽골 국영방송 심층리포트)



현지 언론 취재 (DMB 상용화 및 우리기업의 진출 의지)

DMB 사업권 획득(11.20)이 있었다. DMB를 포함한 방송장비의 몽골시장 선점을 위한 시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KETI, ETRI 등 7개 기관에서 DMB, IPTV 및 방송장비 분야의 한국의 선진기술 소개를 통한 몽골 현지 홍보를 추진하였다. 시연회를 통해 국산방송장비의 기술적 우수성 및 몽골 방송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몽골 현지 TV 등 방송사 현지중계 및 관련자 인터뷰 등 한국 방송장비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10여 개 이상의 몽골 현지 방송사에서 현장 취재를 하였고, UBS(울란바토르 방송국)에서 '전상헌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인터뷰 내용을 12.2(수) 7시뉴스에 방영하였다. 몽골 현지의 높은 관심을 수용하기 위해 12.2(수) 10:00-14:00간 일반인 대상 시연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MOU체결이다. 한·몽 양국 기관간 디지털방송(DMB포함), IPTV, 휴대용 방송장비에 대한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디지털방송 분야에서 KEA, KOBETA(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UBDMB, MNB(몽골국영방송사)간에 체결하였고, 디지털 방송 관련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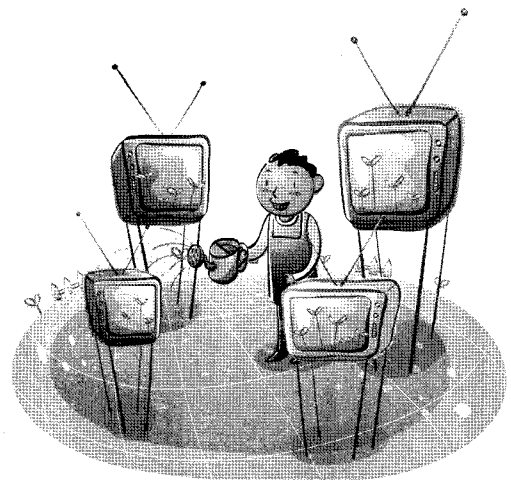
송시스템서비스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IPTV분야에서는 IPTV시스템 구축 및 운용분야에 대한 기술을 협력하고 한국과 몽골간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방송장비분야에서는 양사간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방송장비의 몽골 수출을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고위급 면담으로, 전상헌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블드바타르 통신규제위원장간 면담이 성사되었다. 한국측 의견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는 몽골의 디지털방송 전환에 한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법·제도 정비 등 한국 경험 전수 의향을 표시했다.

한국은 '12년에 디지털전환을 완료할 예정이고, 몽골은 2012년부터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3~5년 소요 전망)이다. 방송통신서비스 부문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는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므로 몽골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였다. 또한 초기 통신산업에 있어 네트워크와 서비스산업을 분리해서 다수의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시너지효과 감소 우려를 표시하였다.

몽골측 의견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 한국장비가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가장 적합함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험 공유를 희망하였다. 한·몽 상호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의 방송통신 환경 조사 및 연구, 발전 방안에 관한 공동협력을 희망하였다.

몽골의 경우 방송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 규제가 있으며, 네트워크와 서비스 통합부분은 몽골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방송통신분야의 인력·기술교류, 국제공동연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하였다.

디지털방송포럼에서는 KEA 방송통신팀 김규완 팀장이 한국 방송장비 산업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등 세 건의 사례가 있었다. 참가기업 간담회에서는, 시연회 참여업체(5개 업체) 몽골 시연회 성과 검토 및 향후 진출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동안 미진했던 국산 방송장비 해외진출 노력에 비해 성공적인 행사로 큰 성과를 보았다. 몽골시장 진출의 첫 발을 내딛는 행사로써 향후 시장 선점을 위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었다.

몽골 방송사와 정부의 예상보다 큰 관심에 놀랐으며, 향후 몽골의 방송관련 산업 성장 추이에 관심을 갖고 주시할 예정이며, 현재 몽골의 경제여건이나 소득수준(연소득 3,000\$) 그리고 방송국의 시설수준 등 여러 여건이 낙후되어 있어 당장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움이 있다.

전자진흥회의 김규완센터장은 몽골의 성공적인 진출을 시작으로 민관합동으로 방송시스템의 패키지 수출모델을 개발하여, 해외 진출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Digital 방송기기 수출사업화 지원사업」(방송통신팀 수행 중)의 ‘컨소시엄형 방송시스템 구축 수출모델 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2010년에는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해외진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몽골측 관심사항인 경험전수 및 인력교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지경부, KOTRA, KETI, ETRI, 방송산업협의회 등과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정부간 협력 회담